

S&P 500[®] 지수가 한국에 중요한 이유

Contributors

Sue Lee

APAC Head of Index Investment Strategy
sue.lee@spglobal.com

Amit Pathak

Head of U.S. Equity Product Management, Asia-Pacific
amit.pathak@spglobal.com

요약

S&P 500[®] 지수는 미국 대형주를 대표하는 핵심 벤치마크로, 투자가 가능한 미국 주식 시가총액의 약 80%를 포괄합니다. 이 지수에는 주요 기업 500 개가 포함되어 있으며, 그중 상당수는 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크고 인지도 높은 기업들로, 전 세계 시장에서 사업을 전개하며 다양한 고객층과 지역별 매출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2024 년 말 기준으로 S&P 500 지수를 추종하거나 벤치마크로 활용하는 자산이 약 20 조 달러에 이르며, 이 중 지수 추종 자산은 약 13 조 달러로 추정됩니다.¹ 인덱스 펀드, 상장지수펀드(ETF), 그리고 선물·옵션 등 장내파생상품을 포함한 S&P 500 관련 상품의 성장과 대중화로 인해 S&P 500 연계 투자에 대한 투자비용과 진입 장벽이 크게 낮아졌습니다.

이 보고서는 한국의 시장 참여자의 관점에서 S&P 500 지수를 분석하고, 다음과 같은 핵심 주제를 다루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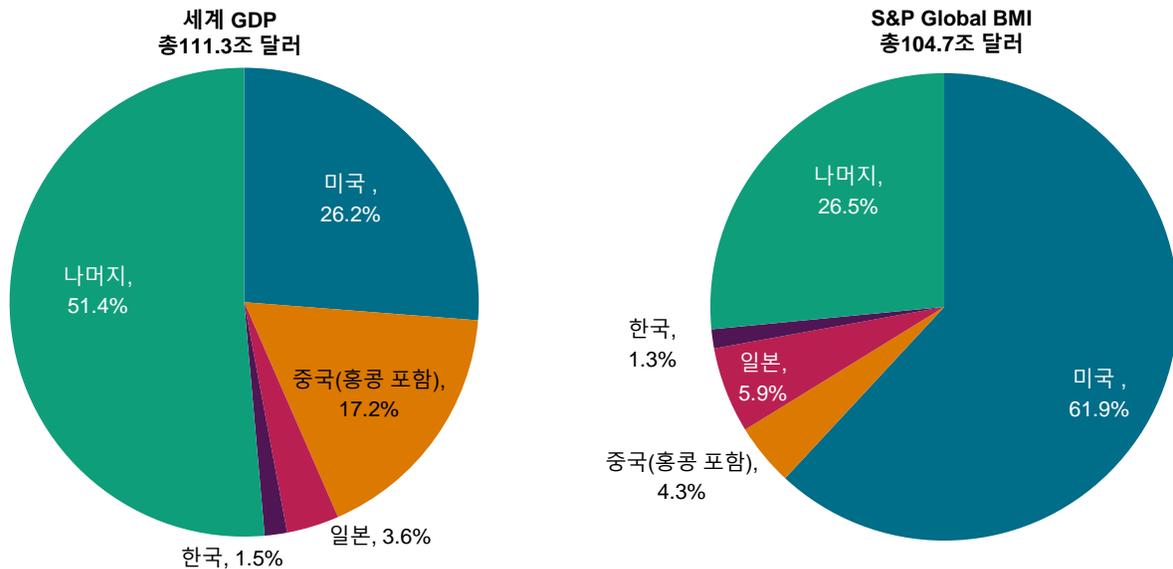
- 글로벌 경제와 주식시장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중요성
- S&P 500 지수와 한국 대표 대형주 벤치마크 지수 비교
- 한국 주식시장 전반의 투자 전략에 있어 S&P 500 지수의 보완적 역할
- S&P 500 지수와 다른 미국 주가지수 또는 액티브 운용 포트폴리오 간의 차이점

¹ “2024 년 S&P 다우존스 지수 연례 자산 설문조사” S&P 다우존스 지수 LLC. (2024 년 12 월 31 일 기준 데이터)

미국 시장의 규모와 중요성

미국은 글로벌 경제와 글로벌 주식 투자기회의 상당한 비중을 차지합니다. 도표 1은 미국, 중국, 일본, 한국, 기타 지역의 국내총생산(GDP)과 주식시장 시가총액 규모를 비교하여 보여줍니다. 한국의 주식 투자자가 국가별 투자 대상을 고려할 때, 전체 투자기회의 60% 이상이 미국 주식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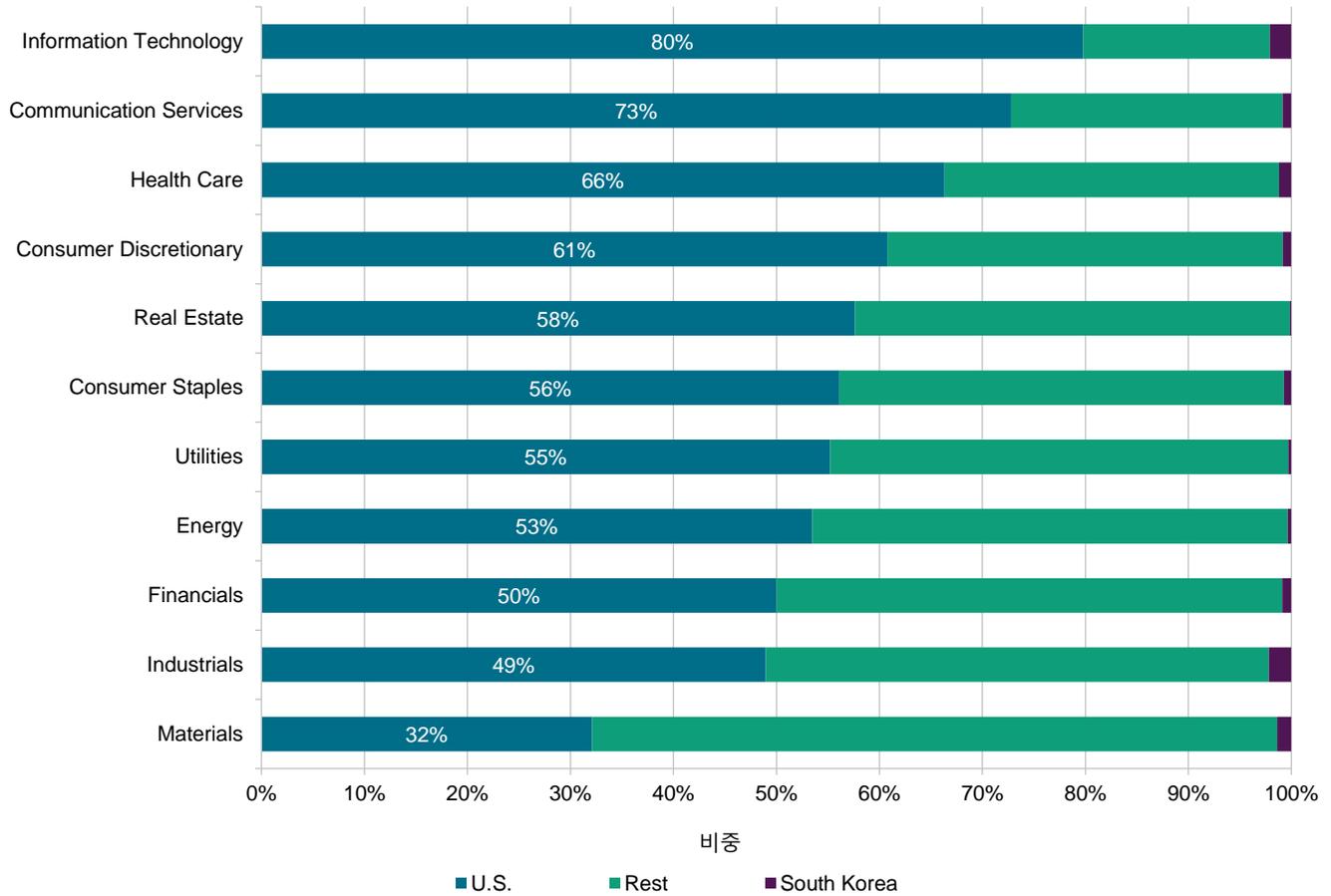
도표 1. 국가별 경제 및 주식시장 비교



출처: S&P 다우존스 지수 LLC, World Bank. 미국, 중국, 홍콩, 일본의 GDP는 2024년, 한국의 GDP는 2023년 기준 최신 데이터를 사용했습니다. S&P Global BMI, S&P United States BMI, S&P Japan BMI, S&P China BMI, S&P Hong Kong BMI, S&P Korea BMI의 유동시가총액은 2025년 9월 30일 기준입니다. S&P China BMI와 S&P Hong Kong BMI는 중국(홍콩 포함) 주식시장을 함께 대표합니다. 본 차트는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용 자료입니다.

미국 주식의 글로벌 중요성은 대부분의 섹터에서도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도표 2는 2025년 9월 30일 기준 [S&P Global BMI](#)의 기업 본사 소재지의 지역별 분포를 GICS® 섹터별로 보여줍니다. 미국 기업들은 11개 섹터 중 9개 섹터에서 유동시가총액 기준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으며, 특히 정보기술(80%), 커뮤니케이션 서비스(73%), 헬스케어(66%) 섹터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습니다. 따라서 시장 참여자는 대부분의 섹터에 대한 익스포저를 고려할 때 관련 미국 주식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도표 2. S&P Global BMI 섹터 지수의 지역 구성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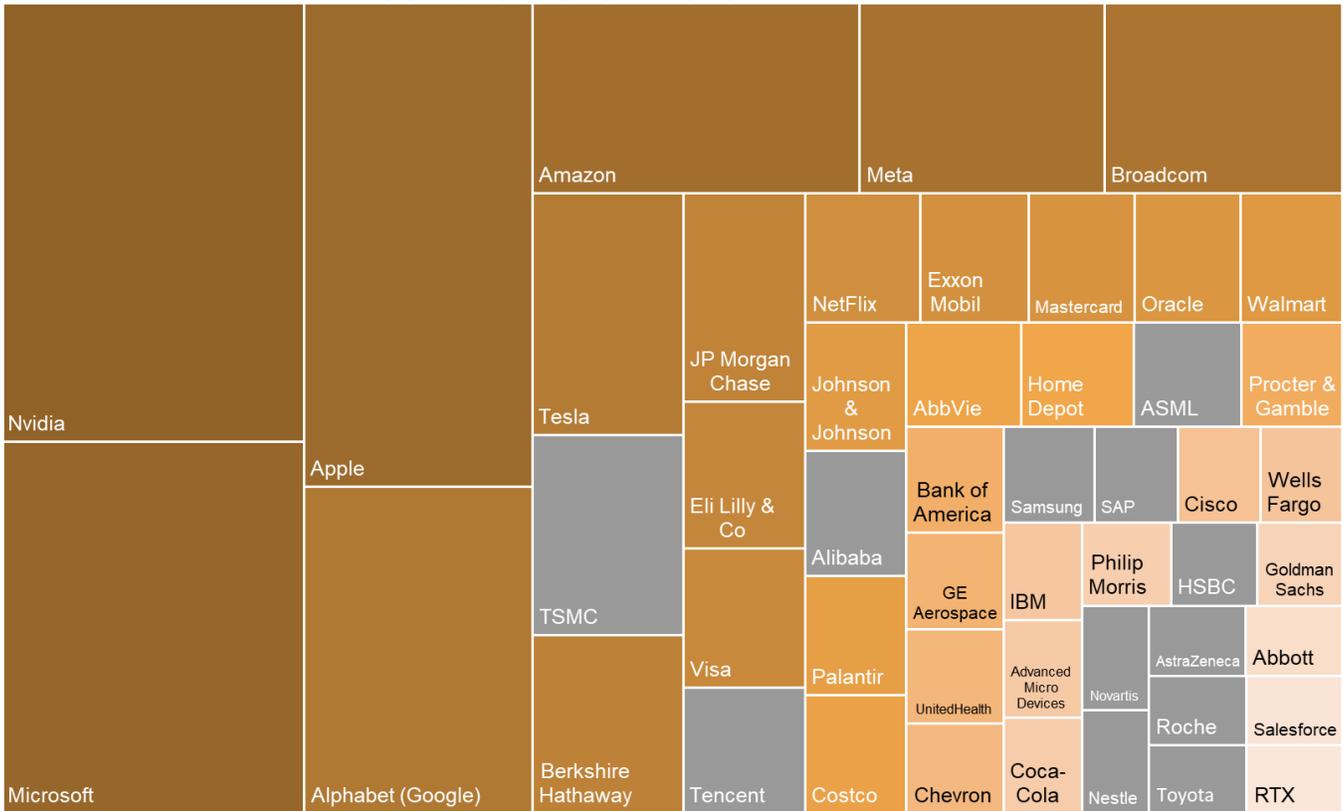


출처: S&P 다우존스 지수 LLC. 데이터: 2025년 9월 30일 기준. S&P Global BMI, S&P United States BMI, S&P Korea BMI의 유동시가총액 기준입니다. 본 차트는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용 자료입니다.

도표 3은 S&P Global BMI에서 가중치가 가장 높은 50개 종목을 포함한 것으로, 미국 기업의 상당한 비중과 글로벌 영향력을 한눈에 보여줍니다. 박스의 크기는 종목의 유동시가총액 비중을, 색상은 기업의 본사 소재국가를 나타냅니다. 미국 기업은 갈색과 금색으로, 비(非)미국 기업은 회색으로 표시되었습니다. 상위 50개 기업 중 37개 기업이 미국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이들이 상위 50개 기업 전체 시가총액의 88%를 차지합니다. 대표적으로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구글, 코카콜라, 맥도날드 등 세계에서 가장 잘 알려진 브랜드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²

² 자세한 내용은 Interbrand의 [Best Global Brands 2025](#)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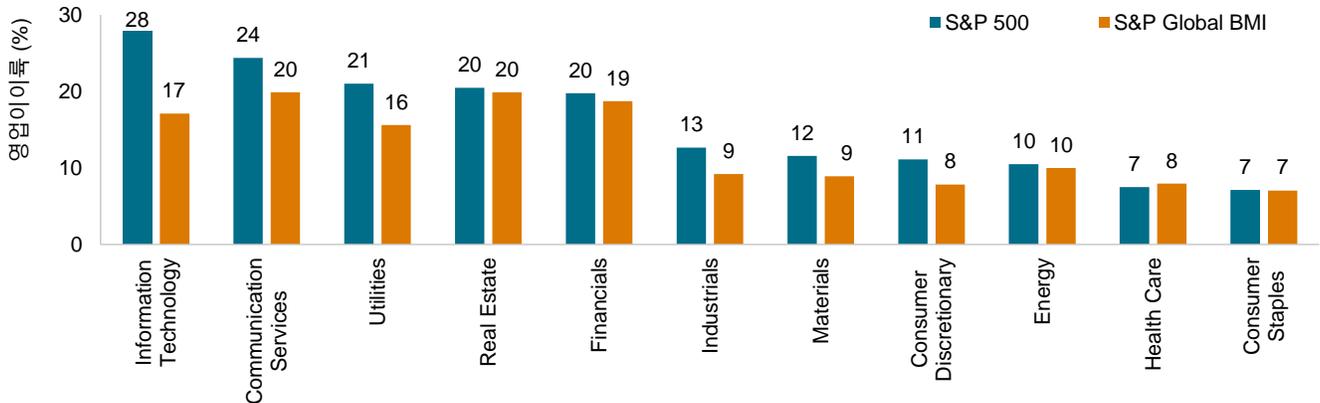
도표 3. S&P Global BMI 지수 내 비중 상위 50 개 기업



출처: S&P 다우존스 지수 LLC. 데이터: 2025년 9월 30일 기준. 박스의 크기는 S&P Global BMI 내 종목의 유동시가총액 비중을, 색상은 기업의 본사 소재국가를 나타냅니다. 미국 기업은 갈색과 금색, 비(非)미국 기업은 회색으로 표시되었습니다. 본 차트는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용 자료입니다.

글로벌 주식 투자 기회에서 미국 기업들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것 외에도, S&P 500 지수 구성 기업들은 전 섹터에서 글로벌 경쟁사 대비 더 높은 영업이익률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정보기술 섹터에서는 S&P 500 지수와 S&P Global BMI 지수 간 영업이익률 격차가 11%에 달했습니다(도표 4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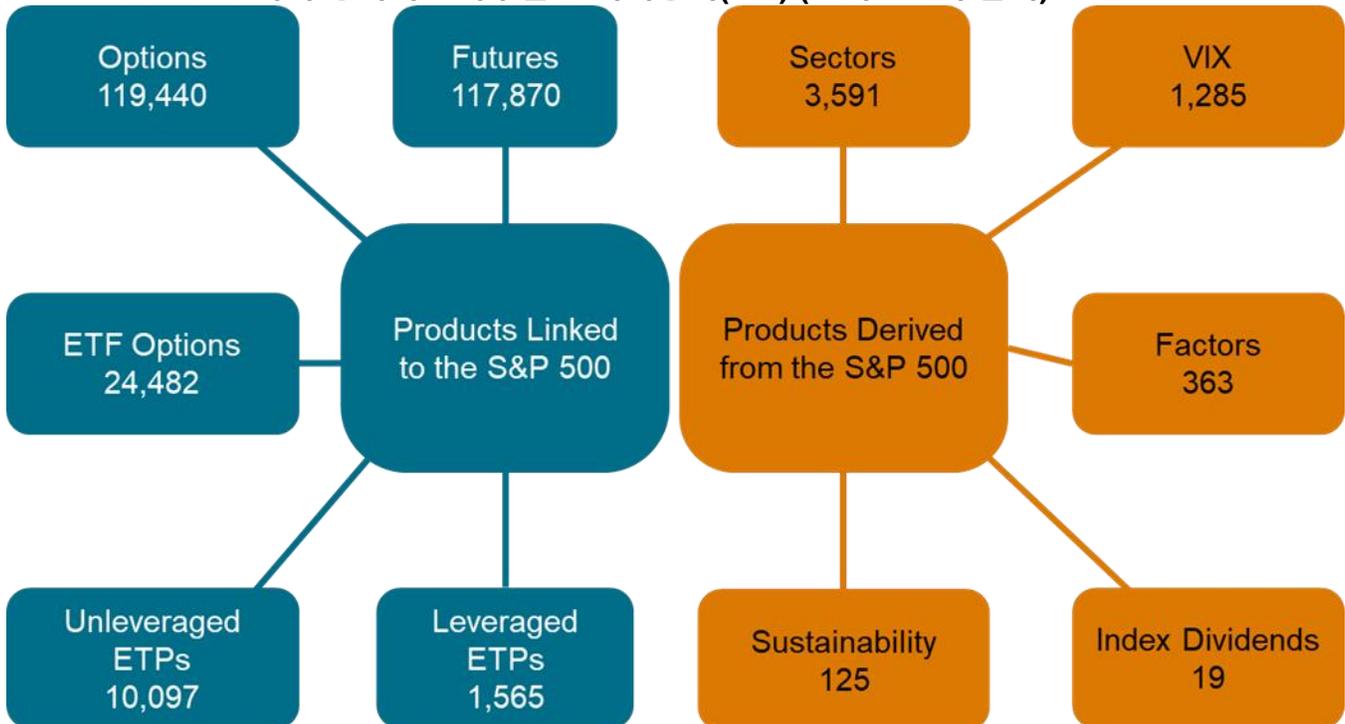
도표 4. S&P 500 지수와 S&P Global BMI 지수의 섹터별 영업이익률 비교



출처: S&P 다우존스 지수 LLC, 블룸버그. 2025년 9월 30일 기준 데이터로, 영업이익률은 지수 구성종목의 최근 12개월 영업이익과 순매출을 바탕으로, 지수 비중을 고려하여 산출되었습니다. 과거의 성과가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차트는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용 자료입니다.

S&P 500 지수는 높은 유동성으로도 주목받습니다. 도표 5는 다양한 상품 유형과 관련 지수로 구성된 S&P 500 지수의 거래 생태계를 보여줍니다. 2024년 한 해 동안 이 생태계 내에서 거래된 총 경제적 가치는 279조 달러에 달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네트워크에 포함된 수많은 상품들은 전 세계 27개 시장에서 거래되며,³ S&P 500 지수의 공정가치에 대한 시장 가격이 하루 종일 거의 연속적으로 형성됩니다. 이러한 견고한 거래 생태계는 가격 투명성과 시장 효율성을 높여, 단기 트레이더부터 장기 패시브 투자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시장 참여자들에게 혜택을 제공합니다. 결과적으로, 한국시장 참여자들은 합리적인 비용과 높은 가격 신뢰성을 바탕으로 S&P 500에 다양한 방법으로 투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도표 5. S&P 500 거래 생태계 – 지수환산 거래총액(IET) (단위: 10억 달러)



출처: S&P 다우존스 지수 LLC, FIA, 블룸버그. 2024년 12월 31일로 끝나는 최근 12개월 기간 기준 데이터로, 본 차트는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용 자료입니다. Index Equivalent Trading (IET), 즉 지수환산 거래총액은 거래 시점의 지수에 대한 경제적 익스포저를 반영하며, 이는 해당 상품이 연동 지수의 변동에 단기적으로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자세한 방법론은 [유동성 환경: 2024년 S&P DJI 지수 연계 거래 동향](#) 참조.

S&P 500 지수와 KOSPI 200 지수 비교

S&P 500 지수와 KOSPI 200 지수는 각각 미국과 한국 주식시장의 전반적인 성과를 대표하는 핵심 지표로 널리 활용되고 있습니다. 두 지수 모두 해당 시장에서 규모가 크고 유동성이 높은

³ 자국 상장 주식과 교차 상장 주식이 모두 포함됩니다. 해당 시장에는 아르헨티나, 호주, 브라질, 캐나다, 칠레, 중국, 콜롬비아, 프랑스, 독일, 홍콩, 헝가리, 이스라엘, 이탈리아, 일본, 카자흐스탄, 한국, 멕시코, 네덜란드, 뉴질랜드, 페루, 싱가포르, 남아프리카공화국, 스위스, 대만, 태국, 영국, 미국이 포함됩니다.

종목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⁴ 다만, 두 지수는 경제 구조와 금융시장 발전의 차이로 인해 여러 측면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입니다.

S&P 500 지수는 현재 500 개 기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미국 주식시장에서 투자 가능한 시가총액의 약 80%를 포함합니다. 반면, KOSPI 200 지수는 200 개 종목으로 구성되어 KOSPI 시장 상장 주식의 약 89%를 반영합니다(2025년 9월 30일 기준). 두 지수 모두 유동주식비율을 조정한 시가총액 가중 방식을 적용하지만, S&P 500 지수는 KOSPI 200 지수에 비해 종목 분산도가 더 높은 경향을 보입니다. 예를 들어, S&P 500 지수의 상위 10 개 종목이 전체 지수의 39%를 차지한 반면, KOSPI 200 지수의 상위 10 개 종목은 53%를 차지하였습니다. 특히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두 종목만으로도 KOSPI 200 지수 전체의 38%를 구성하였습니다.

도표 6. S&P 500 지수와 KOSPI 200 지수의 상위 10 개 구성종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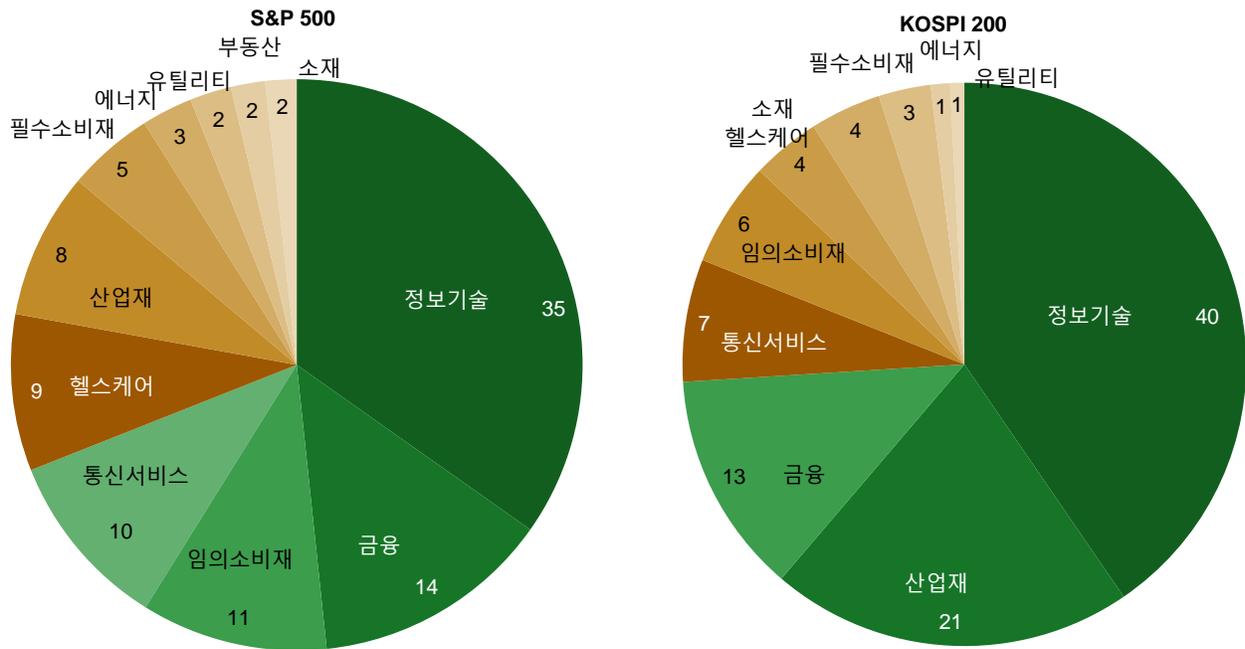
S&P 500	지수 비중 (%)	KOSPI 200	지수 비중 (%)
Nvidia Corp	7.98	삼성전자	25.06
Microsoft Corp	6.75	SK 하이닉스	12.44
Apple Inc.	6.62	한화에어로스페이스	2.48
Amazon.com Inc	3.74	KB 금융그룹	2.39
Meta Platforms, Inc. Class A	2.79	네이버	2.21
Broadcom Inc	2.72	신한금융그룹	1.89
Alphabet Inc A	2.48	현대자동차	1.86
Tesla, Inc	2.19	두산에너지빌리티	1.72
Alphabet Inc C	1.99	셀트리온	1.71
Berkshire Hathaway B	1.62	기아	1.57
합계	38.88	합계	53.33

출처: S&P 다우존스 지수 LLC, 한국거래소. 2025년 9월 30일 기준 데이터. 표는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용 자료입니다.

S&P 500 지수는 섹터 구성 측면에서도 상대적으로 더 높은 분산도를 보입니다. 도표 7에 나타난 바와 같이, 2025년 9월 30일 기준으로 S&P 500 지수에서는 정보기술(35%), 금융(14%), 임의소비재(11%), 통신서비스(10%) 등 4 개 섹터의 비중이 각각 10%를 초과했으며, 통틀어 전체 지수의 69%를 차지하였습니다. 반면, KOSPI 200 지수의 상위 3 개 섹터인 정보기술(40%), 산업재(21%), 금융(13%)은 통틀어 지수의 74%를 형성했습니다. 이러한 섹터 비중의 차이를 감안할 때, S&P 500 지수는 헬스케어, 통신서비스, 임의소비재 섹터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 한국시장 중심의 투자전략을 보완하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⁴ S&P 500 지수는 단순히 미국에 본사를 둔 시가총액 상위 500 개 기업으로 구성된 지수가 아닙니다. 지수에 새로 편입되는 종목은 유동성과 시가총액 요건 외에도 지속적인 이익 창출 실적 등 다양한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S&P 미국 주식 방법론](#)을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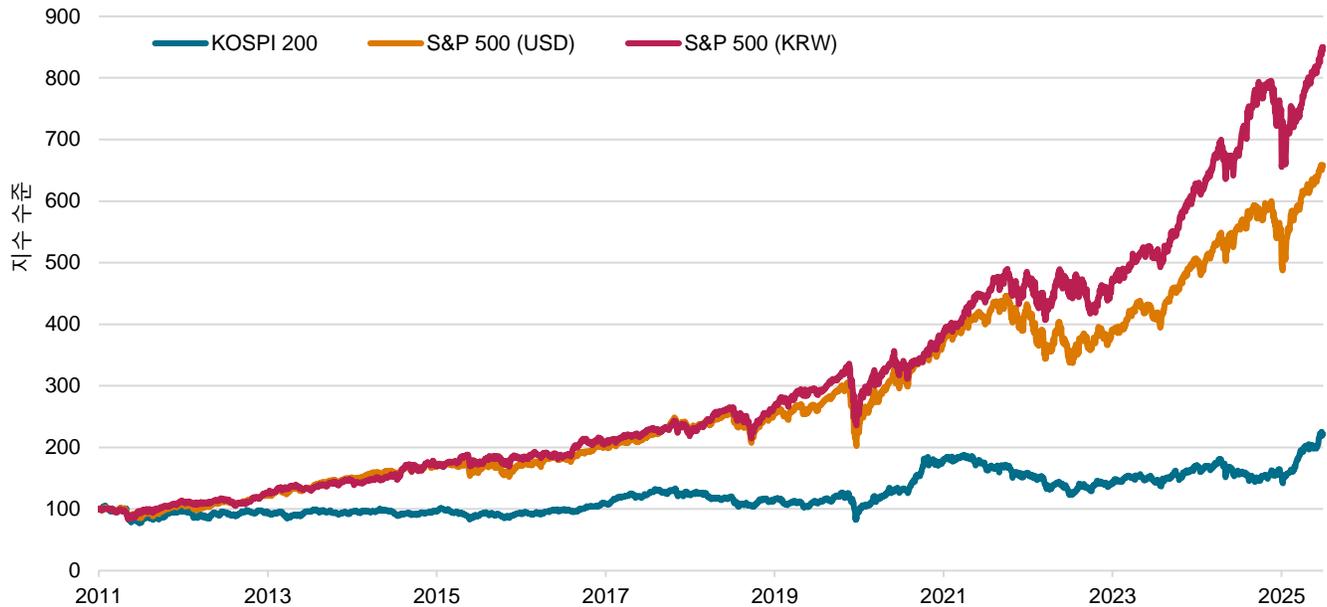
도표 7. S&P 500 지수와 KOSPI 200 지수의 GICS 섹터 구성 비교



출처: S&P 다우존스 지수 LLC, 한국거래소. 2025년 9월 30일 기준 데이터. 지수 내 비중이 10%를 초과한 상위 섹터는 초록색으로 표시되었습니다. 도표는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용 자료입니다.

S&P 500 지수는 역사적으로 절대수익률과 위험조정수익률 측면 모두에서 KOSPI 200 지수보다 우수한 성과를 보여왔습니다(도표 8 참조). 지난 15년간 두 지수의 변동성 수준은 유사했으나, S&P 500 지수는 KOSPI 200 지수보다 최대 낙폭이 상대적으로 작았습니다. 특히 최근 몇 년간 미국 달러화 강세의 영향으로, 환헤지를 적용하지 않은 원화 기준으로 환산했을 때 S&P 500 지수의 성과는 한국시장 참여자들에게 더욱 돋보이는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또한, 시장 조정기 때 강세를 보이는 안전자산 통화로서의 미국 달러화 특성 때문에, 원화 기준으로 측정한 S&P 500 지수의 낙폭이 더욱 완화되었습니다. 이는 S&P 500 지수에 내재된 달러화 익스포저가 한국 기반 시장참여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잠재적 이점을 보여줍니다.

도표 8. S&P 500 지수와 KOSPI 200 지수의 역사적 수익률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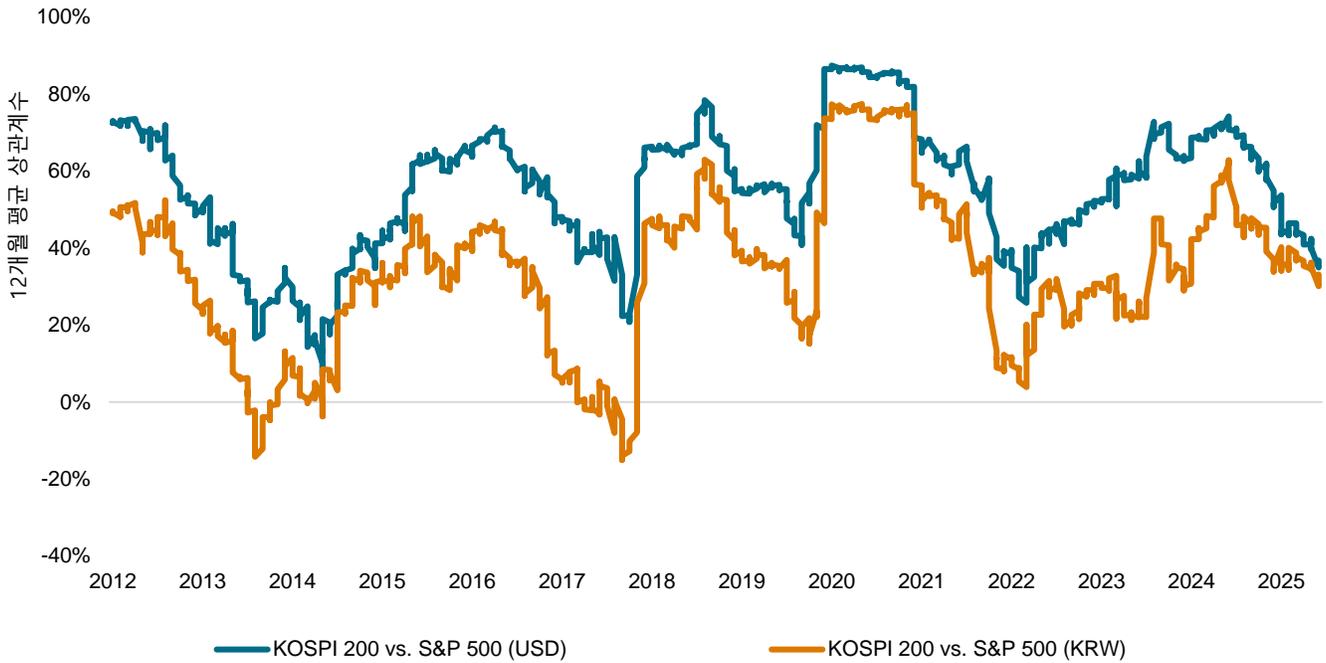
성과	KOSPI 200	S&P 500 (USD)	S&P 500 (KRW)
연평균 수익률(%)	5.7	13.9	15.9
연평균 변동성(%)	17.7	17.4	18.5
수익률/변동성	0.32	0.80	0.86
최대 낙폭(%)	-38.2	-33.8	-29.8

출처: S&P 다우존스 지수 LLC, 한국거래소. 데이터 기간: 2011년 4월 4일 ~ 2025년 9월 30일. 두 지수는 2011년 4월 4일 기준으로 100으로 환산되었습니다. 과거의 성과가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차트와 표는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용 자료입니다.

S&P 500 지수와 KOSPI 200 지수의 결합

서로 다른 경제적, 정치적, 지정학적 요인이 미국과 한국 시장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미국 주식을 포트폴리오에 편입할 경우 분산 효과를 통해 한국시장 중심 투자전략의 위험 대비 수익 구조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2011년 4월 이후의 주간 수익률 데이터를 기준으로 하였을 때, S&P 500 지수와 KOSPI 200 지수 간의 평균 상관계수는 0.62였고, S&P 500 지수 성과를 원화 기준으로 측정할 경우 평균 상관계수는 0.43으로 더 낮았습니다(도표 9 참조). 이는 주식시장과 원화 대비 미국 달러화 간의 음의 상관관계가 작용했기 때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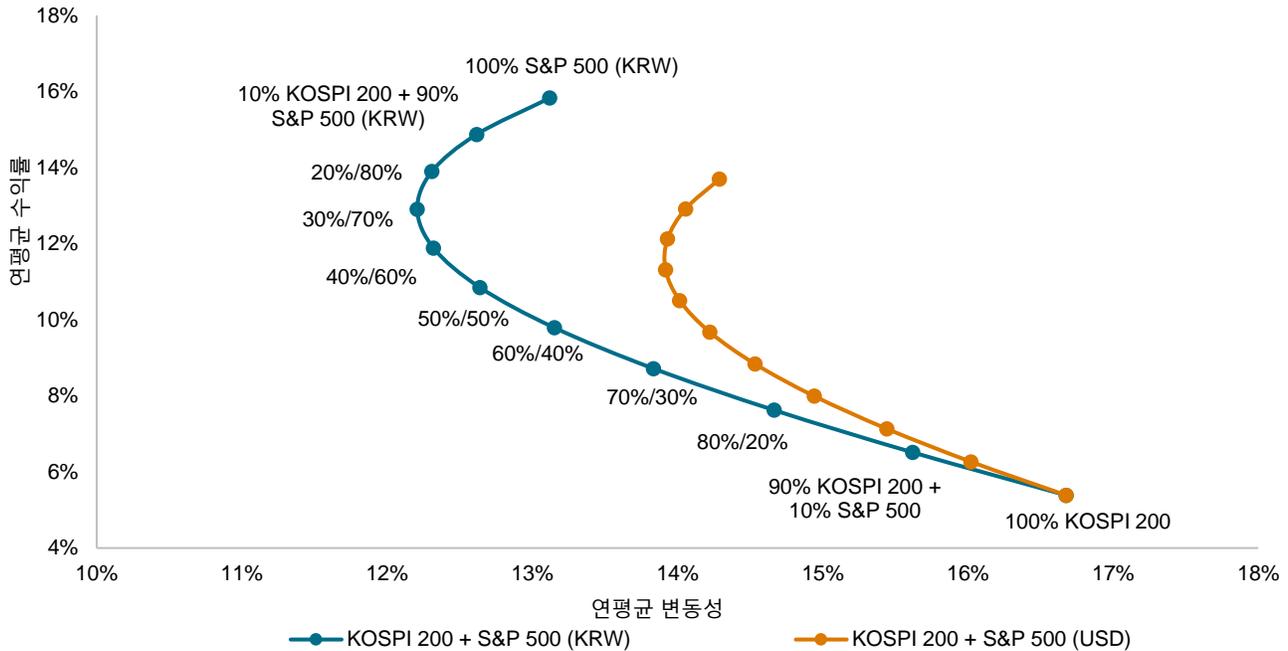
도표 9. S&P 500 지수와 KOSPI 200 지수의 역사적 상관관계



출처: S&P 다우존스 지수 LLC, 한국거래소. 데이터 기간: 2011년 4월 4일 ~ 2025년 9월 30일. 차트는 주간 가격 수익률 지수의 12개월 상관관계를 나타냅니다. 과거의 성과가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차트는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용 자료입니다.

한국시장 중심 투자전략에 미국 주식을 편입했을 때의 잠재적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몇 가지 가상의 포트폴리오 구성을 분석했습니다. 각 포트폴리오는 S&P 500 지수와 KOSPI 200 지수를 결합했으며, 매월 말 목표 가중치로 재조정했습니다. 목표 가중치는 KOSPI 200 지수 100%에서 시작해 S&P 500 지수의 비중이 100%에 이를 때까지 10% 단위로 증가시켰습니다. 도표 10은 2011년 4월 4일부터 2025년 9월 30일까지의 전체 기간 동안 다양한 가상 포트폴리오의 연평균 수익률과 변동성을 보여줍니다. 미국 주식을 포함한 가상 포트폴리오는 전반적으로 변동성이 줄어들고 과거 성과가 개선되었습니다. 특히 S&P 500 지수를 원화 기준으로 측정했을 때 그 효과가 더욱 두드러졌습니다.

도표 10. S&P 500 지수와 KOSPI 200 지수를 결합한 가상 포트폴리오의 수익성과 위험도



모든 포트폴리오는 가상의 시나리오에 기반한 구성입니다.
 출처: S&P 다우존스 지수 LLC, 한국거래소. 데이터 기간: 2011년 4월 4일 ~ 2025년 9월 30일. 지수 성과는 월별 총수익률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습니다. 과거의 성과가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차트는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용 자료이며, 가상의 과거 성과를 반영합니다. 백테스트 결과에 내재된 한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본 문서 말미의 성과 공시를 참고하십시오.

S&P 500 지수와 기타 미국 대형주 지수 비교

S&P 500 지수 이외에 대표적인 미국 대형주 지수로는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DJIA\)](#)와 나스닥 100 지수가 있습니다. DJIA는 미국을 대표하는 30개 블루칩 기업으로 구성된 가격가중 지수이며, 나스닥 100 지수는 나스닥에 상장된 비금융 기업 중 시가총액 상위 100개 기업으로 구성된 수정 시가총액가중 지수입니다.⁵ 도표 11은 S&P 500 지수, DJIA, 나스닥 100 지수를 비교하여 보여줍니다.

S&P 500 지수는 세 지수 가운데 가장 많은 구성 종목을 포함하고 있어 시장 포괄 범위가 가장 넓은 반면, 개별 종목의 평균 시가총액은 상대적으로 작습니다. 구성종목 수가 많기 때문에 S&P 500 지수는 분산 효과가 더 크며, 상위 10개 종목의 비중은 지수 전체의 39%로, 나스닥 100 지수(53%)와 DJIA(55%)보다 현저히 낮습니다. 또한 S&P 500 지수의 미국 내 매출 비중은 71%로 가장 높았던 반면, 비(非)미국 기업이 일부 포함된 나스닥 100 지수의 경우에는 그 비중이 55%에 그쳤습니다.

⁵ 나스닥 100 지수의 구성종목 가중치는 분기별 리밸런싱을 통해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조정됩니다. 1) 단일종목의 가중치는 24%를 초과할 수 없고, 2) 가중치가 4.5%를 초과하는 종목들의 합산 비중은 48%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지수방법론을 참고하십시오.

GICS 분류 기준의 섹터 구성 관점에서 보면, 나스닥 100 지수는 정보기술 섹터 비중이 55%로 가장 높습니다. 반면, 금융 섹터의 비중은 극히 미미하며, 헬스케어와 산업재 섹터의 비중도 상대적으로 낮은 편입니다. 이에 비해 DJIA는 금융 섹터의 비중이 가장 높고, 상위 5개 섹터 간 비중이 비교적 고르게 분포되어 있는 반면, 부동산과 유틸리티 섹터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도표 11. 미국 대형주 지수 비교 – S&P 500 지수, DJIA, 나스닥 100 지수

구분	S&P 500 (유동주식 시가총액)	Nasdaq-100 (수정 시가총액)	DJIA (가격)
구성종목 수	503	101	30
전체 시가총액 (조 달러)	60	32	22
평균 시가총액 (십억 달러)	119	316	732
상위 10개 종목 비중 (%)	39	53	55
미국 내 매출 비중 (%)	71	55	64
GICS 섹터 구성 (%)			
정보기술	34.8	55.1	20.5
금융	13.5	0.4	27.4
임의소비재	10.5	13.1	13.2
통신서비스	10.1	15.1	2.1
헬스케어	8.9	4.3	11.9
산업재	8.3	4.1	14.0
필수소비재	4.9	4.6	4.3
에너지	2.9	0.5	2.1
유틸리티	2.3	1.5	-
부동산	1.9	0.2	-
소재	1.8	1.1	4.6

출처: S&P 다우존스 지수 LLC, 나스닥, 팩트셋(FactSet), 블룸버그. 데이터 기준일: 2025년 9월 30일. 나스닥 100 지수의 구성 종목은 Invesco QQQ Trust ETF의 구성종목을 대응 지표로 사용했습니다. 총 시가총액 및 평균 시가총액은 각 지수 구성종목의 전체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습니다. 미국 내 매출 비중(%)은 각 구성종목의 최근 공시된 연간 매출 데이터를 지역별로 구분한 뒤 지수 수준에서 집계했습니다. 섹터 분류는 GICS 기준을 따르며, 이는 나스닥에서 사용하는 ICB 산업분류와 다를 수 있습니다. 표는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용 자료입니다.

도표 12는 세 지수의 2000년대 이후 역사적 수익률과 변동성을 보여줍니다. 이 기간 동안 나스닥 100 지수는 연평균 8.5%의 수익률로 S&P 500 지수와 DJIA(각각 8.0%) 보다 높은 성과를 기록했습니다. 나스닥 100 지수는 2000년대 초반 ‘닷컴 버블’ 이후 급격한 조정을 겪었으나, 최근 15년 동안은 견조한 상승세를 이어왔습니다. 이는 정보기술 섹터의 강세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장기간 지속된 저금리 기조가 성장주에 긍정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변동성 측면에서 나스닥 100 지수는 구성종목의 평균 변동성이 높고 종목 및 섹터 분산도가 낮아 전반적으로 변동성이 가장 컸습니다. 이에 비해 DJIA와 S&P 500 지수는 비슷한 수준의

변동성을 나타내었고, DJIA 가 상대적으로 변동성이 다소 낮았습니다. 이는 DJIA 가 역사적으로 주가 변동성이 낮은 경향을 가진 대형 기업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수익률과 위험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DJIA 는 전체 기간 동안 가장 우수한 성과를 보였고, 나스닥 100 지수와 S&P 500 지수는 단기 구간에서 상대적으로 더 좋은 성과를 기록했습니다.

도표 12. S&P 500 지수, DJIA, 나스닥 100 지수의 수익률 및 변동성 비교

지수	1년	3년	5년	10년	15년	2000년 이후
연평균 수익률(%)						
S&P 500	17.6	24.9	16.5	15.3	14.6	8.0
DJIA	11.5	19.6	13.0	13.5	12.8	8.0
Nasdaq-100	23.9	32.1	17.6	20.6	19.5	8.5
연평균 변동성(%)						
S&P 500	18.6	16.3	17.1	18.3	17.4	19.5
DJIA	16.9	14.2	15.0	17.8	16.7	18.5
Nasdaq-100	23.3	21.5	23.1	22.6	21.0	27.4
수익률/변동성 비율						
S&P 500	0.94	1.53	0.96	0.84	0.84	0.41
DJIA	0.68	1.38	0.87	0.76	0.76	0.43
Nasdaq-100	1.03	1.49	0.76	0.91	0.93	0.31

출처: S&P 다우존스 지수 LLC, 블룸버그. 데이터 기간: 1999년 12월 31일 ~ 2025년 9월 30일. 지수 성과는 미 달러화 기준 일별 총수익률을 바탕으로 산출되었습니다. 과거의 성과가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표는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용 자료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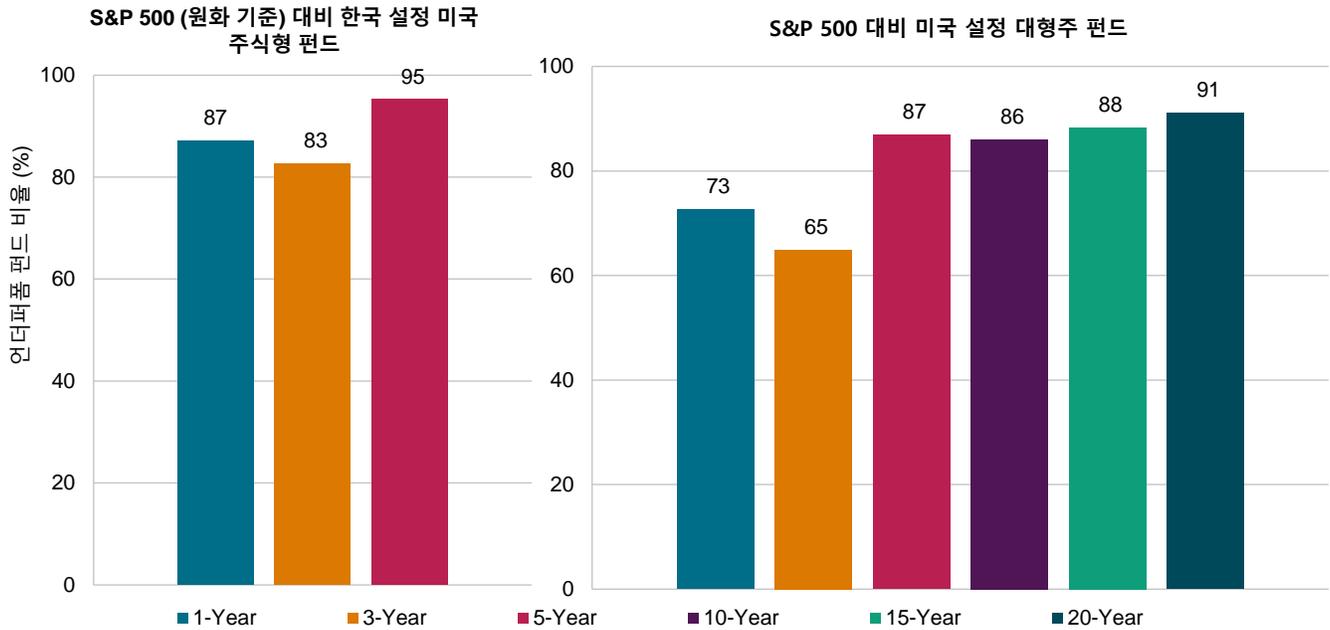
미국 주식시장 투자: 액티브와 패시브 운용 분석

미국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방식은 액티브 펀드를 통하거나 기초 지수를 추종하는 지수연계상품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S&P 다우존스 지수(S&P DJI)는 전 세계 여러 국가와 지역에서 액티브 펀드의 성과를 적절한 벤치마크와 비교해 분석한 **SPIVA® 스코어카드**를 반기마다 발행합니다. SPIVA 결과는 국가 및 지역별로 차이가 있었지만 핵심 메시지는 동일하였습니다. **액티브 펀드가 대부분의 기간 동안 관련 벤치마크를 하회하는 성과를 보였다는 것입니다.**

도표 13은 한국과 미국에 설정된 액티브 미국 주식형 펀드의 벤치마크 대비 성과를 요약한 것입니다. 펀드의 설정 지역이나 투자 기간과 관계없이, 대부분의 액티브 매니저들은 절대수익률 기준에서 S&P 500 지수를 언더퍼폼했습니다. 특히 한국에 설정된 액티브 미국 주식형 펀드는 미국에 설정된 미국 대형주 펀드와 비교했을 때 1년, 3년, 5년 기간 모두에서 더 높은 언더퍼폼 비율을 보였습니다. 이는 모든 펀드가 S&P 500 (원화 기준) 지수 대비로 평가되었기 때문에, 원화 약세 국면에서 환해지의 부정적 영향이 부분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해석됩니다. 하지만 미국에 설정된 펀드 역시 장기 구간에서 언더퍼폼 비율이 증가했습니다. 10년, 15년, 20년 기간 기준으로 각각 86%, 88%, 91%의 펀드가 S&P 500 지수를 하회했습니다. 위험조정 수익률 기준으로 보더라도 유사한 결과가 나타났습니다.⁶ 이러한 데이터는 지수기반 운용 전략이 미국 주식시장에서 액티브 전략의 보완적 또는 대체적 수단으로서 충분히 유효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도표 13. S&P 500 지수를 언더퍼폼한 액티브 미국 주식형 펀드의 비율



출처: S&P 다우존스 지수 LLC, CRSP, 모닝스타. 데이터 기간: 2005년 6월 30일 ~ 2025년 6월 30일. 언더퍼폼 비율은 벤치마크 대비 절대수익률이 낮은 펀드의 비율입니다. 한국에 설정된 미국 주식형 펀드는 S&P 500 (KRW) Total Return 지수를 벤치마크로 사용했습니다. 과거의 성과가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차트는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용 자료입니다.

결론

미국 주식시장은 전 세계 주식투자 기회의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인덱스펀드와 ETF 등 지수연계상품의 글로벌 확산으로 인해, 미국 주식에 분산 투자하는 환경이 한층 더 접근하기 쉬워지고, 비용 효율적이며, 투명해졌습니다. S&P 500 지수에는 미국을 대표하는 대형 기업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고,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 많으며 영업이익률을 측면에서도 뛰어납니다. 한국 주식 중심의 투자전략 관점에서 보았을 때, S&P 500 지수는 폭넓은 종목 분산과 차별화된 섹터 구성을 바탕으로 보완적인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과거 데이터의 가상 백테스트 결과에서도 성과와 위험 대비 수익률을 개선시키려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⁶ 추가적인 분석 내용은 [2025년 상반기 SPIVA Asia ex-Japan 스코어카드](#) 및 [2025년 상반기 SPIVA 미국 스코어카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Performance Disclosure/Back-Tested Data

All information presented prior to an index's Launch Date is hypothetical (back-tested), not actual performance, and is based on the index methodology in effect on the index launch date. However, when creating back-tested history for periods of market anomalies or other periods that do not reflect the general current market environment, index methodology rules may be relaxed to capture a large enough universe of securities to simulate the target market the index is designed to measure or strategy the index is designed to capture. For example, market capitalization and liquidity thresholds may be reduced. In addition, forks have not been factored into the back-test data with respect to the S&P Cryptocurrency Indices. For the S&P Cryptocurrency Top 5 & 10 Equal Weight Indices, the custody element of the methodology was not considered; the back-test history is based on the index constituents that meet the custody element as of the Launch Date. Also, the treatment of corporate actions in back-tested performance may differ from treatment for live indices due to limitations in replicating index management decisions. Complete index methodology details are available at www.spglobal.com/spdji. Back-tested performance reflects application of an index methodology and selection of index constituents with the benefit of hindsight and knowledge of factors that may have positively affected its performance, cannot account for all financial risk that may affect results and may be considered to reflect survivor/look ahead bias. Actual returns may differ significantly from, and be lower than, back-tested returns. Past performance is not an indication or guarantee of future results. Please refer to the methodology for the Index for more details about the index, including the manner in which it is rebalanced, the timing of such rebalancing, criteria for additions and deletions, as well as all index calculations. Back-tested performance is for use with institutions only; not for use with retail investors.

S&P Dow Jones Indices defines various dates to assist our clients in providing transparency. The First Value Date is the first day for which there is a calculated value (either live or back-tested) for a given index. The Base Date is the date at which the index is set to a fixed value for calculation purposes. The Launch Date designates the date when the values of an index are first considered live: index values provided for any date or time period prior to the index's Launch Date are considered back-tested. S&P Dow Jones Indices defines the Launch Date as the date by which the values of an index are known to have been released to the public, for example via the company's public website or its data feed to external parties. For Dow Jones-branded indices introduced prior to May 31, 2013, the Launch Date (which prior to May 31, 2013, was termed "Date of introduction") is set at a date upon which no further changes were permitted to be made to the index methodology, but that may have been prior to the Index's public release date.

Typically, when S&P DJI creates back-tested index data, S&P DJI uses actual historical constituent-level data (e.g., historical price, market capitalization, and corporate action data) in its calculations. As ESG investing is still in early stages of development, certain datapoints used to calculate S&P DJI's ESG indices may not be available for the entire desired period of back-tested history. The same data availability issue could be true for other indices as well. In cases when actual data is not available for all relevant historical periods, S&P DJI may employ a process of using "Backward Data Assumption" (or pulling back) of ESG data for the calculation of back-tested historical performance. "Backward Data Assumption" is a process that applies the earliest actual live data point available for an index constituent company to all prior historical instances in the index performance. For example, Backward Data Assumption inherently assumes that companies currently not involved in a specific business activity (also known as "product involvement") were never involved historically and similarly also assumes that companies currently involved in a specific business activity were involved historically too. The Backward Data Assumption allows the hypothetical back-test to be extended over more historical years than would be feasible using only actual data. For more information on "Backward Data Assumption" please refer to the [FAQ](#). The methodology and factsheets of any index that employs backward assumption in the back-tested history will explicitly state so. The methodology will include an Appendix with a table setting forth the specific data points and relevant time period for which backward projected data was used.

Index returns shown do not represent the results of actual trading of investable assets/securities. S&P Dow Jones Indices maintains the index and calculates the index levels and performance shown or discussed but does not manage actual assets. Index returns do not reflect payment of any sales charges or fees an investor may pay to purchase the securities underlying the Index or investment funds that are intended to track the performance of the Index. The imposition of these fees and charges would cause actual and back-tested performance of the securities/fund to be lower than the Index performance shown. As a simple example, if an index returned 10% on a US \$100,000 investment for a 12-month period (or US \$10,000) and an actual asset-based fee of 1.5% was imposed at the end of the period on the investment plus accrued interest (or US \$1,650), the net return would be 8.35% (or US \$8,350) for the year. Over a three-year period, an annual 1.5% fee taken at year end with an assumed 10% return per year would result in a cumulative gross return of 33.10%, a total fee of US \$5,375, and a cumulative net return of 27.2% (or US \$27,200).

General Disclaimer

© 2025 S&P Dow Jones Indices. All rights reserved. S&P, S&P 500, SPX, SPY, The 500, US 500, US 30, S&P 100, S&P COMPOSITE 1500, S&P 400, S&P MIDCAP 400, S&P 600, S&P SMALLCAP 600, S&P GIVI, GLOBAL TITANS, DIVIDEND ARISTOCRATS, DIVIDEND MONARCHS, BUYBACK ARISTOCRATS, SELECT SECTOR, S&P MAESTRO, S&P PRISM, GICS, SPIVA, SPDR, INDEXOLOGY, iTraxx, iBoxx, ABX, ADBI, CDX, CMBX, MBX, MCDX, PRIMEX, HHPI and SOVX are trademarks of S&P Global, Inc. ("S&P Global") or its affiliates. DOW JONES, DJIA, THE DOW and DOW JONES INDUSTRIAL AVERAGE are trademarks of Dow Jones Trademark Holdings LLC ("Dow Jones"). These trademarks together with others have been licensed to S&P Dow Jones Indices LLC. Redistribution or reproduction in whole or in part are prohibited without written permission of S&P Dow Jones Indices LLC. This document does not constitute an offer of services in jurisdictions where S&P Dow Jones Indices LLC, S&P Global, Dow Jones or their respective affiliates (collectively "S&P Dow Jones Indices") do not have the necessary licenses. Except for certain custom index calculation services, all information provided by S&P Dow Jones Indices is impersonal and not tailored to the needs of any person, entity or group of persons. S&P Dow Jones Indices receives compensation in connection with licensing its indices to third parties and providing custom calculation services. Past performance of an index is not an indication or guarantee of future results.

It is not possible to invest directly in an index. Exposure to an asset class represented by an index may be available through investable instruments based on that index. S&P Dow Jones Indices does not sponsor, endorse, sell, promote or manage any investment fund or other investment vehicle that is offered by third parties and that seeks to provide an investment return based on the performance of any index. S&P Dow Jones Indices makes no assurance that investment products based on the index will accurately track index performance or provide positive investment returns. Index performance does not reflect trading costs, management fees or expenses. S&P Dow Jones Indices makes no representation regarding the advisability of investing in any such investment fund or other investment vehicle. A decision to invest in any such investment fund or other investment vehicle should not be made in reliance on any of the statements set forth in this document. S&P Dow Jones Indices is not an investment adviser, commodity trading advisor, commodity pool operator, broker dealer, fiduciary, promoter" (as defined in the Investment Company Act of 1940, as amended), "expert" as enumerated within 15 U.S.C. § 77k(a) or tax advisor. Inclusion of a security, commodity, crypto currency or other asset within an index is not a recommendation by S&P Dow Jones Indices to buy, sell, or hold such security, commodity, crypto currency or other asset, nor is it considered to be investment advice or commodity trading advice.

Closing prices for S&P Dow Jones Indices' US benchmark indices are calculated by S&P Dow Jones Indices based on the closing price of the individual constituents of the index as set by their primary exchange. Closing prices are received by S&P Dow Jones Indices from one of its third party vendors and verified by comparing them with prices from an alternative vendor. The vendors receive the closing price from the primary exchanges. Real-time intraday prices are calculated similarly without a second verification.

These materials have been prepared solely for informational purposes based upon information generally available to the public and from sources believed to be reliable. No content contained in these materials (including index data, ratings, credit-related analyses and data, research, valuations, model, software or other application or output therefrom) or any part thereof ("Content") may be modified, reverse-engineered, reproduced or distributed in any form or by any means, or stored in a database or retrieval system, without the prior written permission of S&P Dow Jones Indices. The Content shall not be used for any unlawful or unauthorized purposes. S&P Dow Jones Indices and its third-party data providers and licensors (collectively "S&P Dow Jones Indices Parties") do not guarantee the accuracy, completeness, timeliness or availability of the Content. S&P Dow Jones Indices Parties are not responsible for any errors or omissions, regardless of the cause, for the results obtained from the use of the Content. THE CONTENT IS PROVIDED ON AN "AS IS" BASIS. S&P DOW JONES INDICES PARTIES DISCLAIM ANY AND ALL EXPRESS OR IMPLIED WARRANTIES,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ANY WARRANTIES OF MERCHANTABILITY OR FITNESS FOR A PARTICULAR PURPOSE OR USE, FREEDOM FROM BUGS, SOFTWARE ERRORS OR DEFECTS, THAT THE CONTENT'S FUNCTIONING WILL BE UNINTERRUPTED OR THAT THE CONTENT WILL OPERATE WITH ANY SOFTWARE OR HARDWARE CONFIGURATION. In no event shall S&P Dow Jones Indices Parties be liable to any party for any direct, indirect, incidental, exemplary, compensatory, punitive, special or consequential damages, costs, expenses, legal fees, or losses (including, without limitation, lost income or lost profits and opportunity costs) in connection with any use of the Content even if advised of the possibility of such damages.

S&P Global keeps certain activities of its various divisions and business units separate from each other in order to preserve the independence and objectivity of their respective activities. As a result, certain divisions and business units of S&P Global may have information that is not available to other business units. S&P Global has established policies and procedures to maintain the confidentiality of certain non-public information received in connection with each analytical process.

In addition, S&P Dow Jones Indices provides a wide range of services to, or relating to, many organizations, including issuers of securities, investment advisers, broker-dealers, investment banks, other financial institutions and financial intermediaries, and accordingly may receive fees or other economic benefits from those organizations, including organizations whose securities or services they may recommend, rate, include in model portfolios, evaluate or otherwise address.

The Global Industry Classification Standard (GICS®) was developed by and is the exclusive property and a trademark of S&P and MSCI. Neither MSCI, S&P nor any other party involved in making or compiling any GICS classifications makes any express or implied warranties or representations with respect to such standard or classification (or the results to be obtained by the use thereof), and all such parties hereby expressly disclaim all warranties of originality, accuracy, completeness, merchantability or fitness for a particular purpose with respect to any of such standard or classification. Without limiting any of the foregoing, in no event shall MSCI, S&P, any of their affiliates or any third party involved in making or compiling any GICS classifications have any liability for any direct, indirect, special, punitive, consequential or any other damages (including lost profits) even if notified of the possibility of such damages.